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2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7.31~2025.08.06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반대, 주민투표(기초자치단체), 대통령, 중국, 청년
경제·관광	관광객, 평가, 상승, 매출, 업체
지역·사회	단속, 폭염, 정전, 차량, 대응

※ 분석 기간 : 25.07.31.~25.08.0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li> <li>- 도의회 여론조사 제안에 대한 도의 거부</li> <li>- 중소도시 재외도민회 배제 조례안 반발</li> </ul>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추진 난항</li> <li>- 이상봉 의장의 8월 내 여론조사 제안</li> <li>- 198억 원 개편 준비 예산 편성 논란</li> </ul>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li> <li>- 오영훈 지사, 대통령에게 제주 정책 제안</li> <li>- 정부와 여당의 제2공항 거리두기</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li> <li>-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 9월 취항</li> <li>- 치쿤쿠니아열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주의</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월세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li> <li>- 청년원탁회의, 정책 직접 제안 및 채택</li> <li>- 청년 노동자 고용의 질 개선 요구</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크루즈 관광객 46만명 돌파</li> <li>-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시범 운영</li> <li>-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5개 농협, 전국 업적평가 상위권</li> <li>-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평가 '라' 등급 부진</li> <li>- 라온건설,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li> </ul>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우스감귤, 품질 향상으로 가격 상승</li> <li>- 제주 7월 물가 1.7% 상승, 먹거리 부담 가중</li> <li>- 주택시장 침체 속 6월 인허가/착공 건수 증가</li> </ul>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관광개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li> <li>- 제주 1차산업 조수입, 사상 첫 5조원 돌파</li> <li>- 제주 대형소매점 매출 5개월째 감소</li> </ul>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li> <li>- 제주 소상공인·전통시장, 7월 체감경기 동반 하락</li> <li>- 제주삼다수, 1L 신제품 출시 및 위탁판매사 재선정</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본격화</li> <li>-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 단속</li> <li>- 공항·항만 주유취급소 특별 검사</li> </ul>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 기록</li> <li>- 온열질환자 급증 및 대응 강화</li> <li>-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폭염 전망</li> </ul>
	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대규모 정전 발생</li> <li>- 정전 원인 조사 및 후속 대응</li> <li>- 재난문자 미발송 논란</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효과</li> <li>- 5중 연쇄 추돌사고 발생</li> <li>- 방치 자전거 문제 심각</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특수대응단 공식 출범</li> <li>- 아이돌봄공백 가구 소방 지원</li> <li>-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홍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반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회 여론조사 제안에 대한 도의 거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개편안(2개안 vs 3개안)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해 의회 주도의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함.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였으나, 제주도정은 사실상 이를 거부함</li> <li>· 제주도는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3개 기초시 안이 도출되었고 정부에 공식 제출된 상황이라며, 새로운 여론조사 실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이로 인해 갈등 해결 방안 모색에 난항이 예상됨</li> </ul> </li> <li>- <b>중소도시 재외도민회 배제 조례안 반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에서 수원, 안산 등 중소도시 도민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해당 도민회들의 강한 반발을 삼. 이들은 오랜 기간 제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출향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li> <li>· 제주도 역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으며,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힘. 일부 도민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갈등 해소라는 발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포용과 통합 정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투표 (기초자치 단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추진 난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행정 구역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놓임.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요구하며 단일안 마련을 촉구함</li> <li>· 제주도가 목표로 한 내년 7월 출범을 위해서는 8월 내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져야 했으나, 오영훈 지사의 '3개안'과 김한규 의원의 '2개안'이 충돌하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짐. 사실상 개편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li> </ul> </li> <li>- <b>이상봉 의장의 8월 내 여론조사 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회 주도로 8월 내에 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해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전격 제안함. 이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중앙정부에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됨</li> <li>· 하지만 제주도정은 이미 공론화를 거쳤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촉박한 시간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결국 의회 내부에서조차 사전 교감 없는 '폭탄 발언'으로 평가되며 혼란을 가중시킴</li> </ul> </li> <li>- <b>198억 원 개편 준비 예산 편성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주민투표 여부가 불투명한 행정체제 개편 준비 비용 198억 원을 반영해 큰 논란을 빚음. 해당 예산은 기초시·의회 청사 재배치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비용임</li> <li>·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민생을 빙자한 정치 추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예산 철회를 요구함. 반면 제주도 측은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준비이며, 개편에 대한 도정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li> </ul> </li> </ul>

정치·행정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함.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및 예산 배분 과정에서 균형발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함</li> <li>·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을 정책 실현의 예로 들며,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 정책 기초를 예고함</li> </ul> </li> <li>- 오영훈 지사, 대통령에게 제주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의 주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힘</li> <li>· 또한, 제주가 광역 단위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우수 협치 사례로 소개하며 전국 확산을 건의함. 이와 함께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허가에 대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공유함</li> </ul> </li> <li>- 정부와 여당의 제2공항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이후까지 제2공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요 공항 사업에서 이를 제외함</li> <li>·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정부의 전략적 선택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며, 사업 추진 여부가 더욱 안갯속에 빠짐</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이는 방한 수요를 유발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제주도에만 국한됐던 무비자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됨</li> <li>· 제주 관광업계는 무비자라는 독점적 이점이 사라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분산될 것을 우려함. 이에 제주도는 개별 관광객 대상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섬</li> </ul> </li> <li>-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 9월 취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월간의 협의 끝에 해양수산부가 제주-중국 칭다오 간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승인함. 제주항 개항 57년 만의 첫 국제 정기 화물선으로, 이르면 9월 초 취항할 예정임</li> <li>· 이 항로를 통해 부산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해져 물류비는 약 42% 절감되고 운송 시간도 이틀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운항 초기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충분한 물동량 확보와 손실 보전금 문제가 과제로 남음</li> </ul> </li> <li>- 치쿤쿠니아열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중국 광둥성 등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인 치쿤쿠니아열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제주도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li> </ul> </li> </ul>

정치·행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쿤쿠니아열은 Deng열, 지카 바이러스와 함께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제주도는 해외 방문 전 모기 기피제 준비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함.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귀국 후 2주 내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함</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 월세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당초 계획(800가구)을 초과한 1156가구에 달함. 이에 제주도는 국비 1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li> <li>· 도는 추가 확보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 월세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임. 또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임</li> </ul> </li> <li>- <b>청년원탁회의, 정책 직접 제안 및 채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가 활동을 통해 발굴한 28개의 청년정책을 도정에 제안했으며, 이 중 19건이 채택 또는 일부 채택됨. 이는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됨</li> <li>· 채택된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휴먼 라이브러리', '금융 첫걸음 교육', '청년 위케이션 제도' 등이 있으며, 제안된 정책들은 내년도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li> </ul> </li> <li>- <b>청년 노동자 고용의 질 개선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노동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20~30대)에서 감정노동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일과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임금 수준과 개인 발전 가능성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청년 고용의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li> <li>· 또한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35.7%에 달하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확인됨.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li> </ul> </li> </ul>



	<b>관광객</b>	<p>여행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됨. 공영관광지 참여 부재 및 일부 업종 편중은 한계로 지적되며, 도민의 악용 가능성,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등 시스템 보완 요구가 제기됨. 공사는 조례 제정,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p> <p><b>-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이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상호 조치로, 방한 수요를 유발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함. 그동안 제주에만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 관광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li> <li>· 제주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수도권 분산을 우려하며 비상 대응에 돌입함. 단기적으로 개별 관광객 대상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대형 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국경절, 광군제 연휴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임. 중장기적으로는 가족, 교육 여행 등 차별화된 테마 상품을 개발해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방침임</li> </ul>
<b>경제·관광</b>	<b>평가</b>	<p><b>- 도내 5개 농협, 전국 업적평가 상위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종합 업적평가에서 제주지역 5개 농협이 우수 농협으로 선정됨. 종합업적 평가는 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농·축협의 종합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임. 대정농협이 1위, 제주남원농협이 2위, 제주시·조천·서귀포농협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둠</li> <li>·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이번 성과가 어려운 경영 여건과 이상 기후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함. 이번 평가는 전국 농·축협을 40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주 농협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됨. 제주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li> </ul> <p><b>-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평가 '라' 등급 부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라' 등급을 받아 부진기관으로 지정됨. 이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 유도 및 공공서비스 기여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됨. 에너지공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영업수지비율 및 자본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경영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임원진 연봉 동결 및 직원 성과급이 제한됨</li> <li>· 반면, 제주개발공사는 '나' 등급, 제주관광공사와 상하수도본부는 '다'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음. 이번 평가는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됨. 제주에너지공사는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li> </ul> <p><b>- 라온건설,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559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에서 라온건설(주)이 1,807억여원의 평가액으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함.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li> </ul>

경제·관광	평가	<p>가하는 제도로, 공공공사 발주 시 업체 선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영도종합건설과 세기건설(주)이 각각 2위와 3위로 한 계단씩 상승했으며, 성지건설개발(주)은 4위로 하락하는 등 상위권 순위 변동이 있었음. 특히 (주)동인종합건설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6위로 급상승하는 등 10위권 내외에서 순위 변동이 크게 나타남. 단일 업종별로는 토목공사업 영성토건(주), 건축공사업 (주)정원종합건설이 1위를 기록함</li> </ul>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하우스감귤, 품질 향상으로 가격 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산 하우스감귤 도매가격이 품질 향상과 다른 여름 과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8월 상품 3kg당 도매가격은 2만 4,000원으로 전망되어 전년 동월(2만3,000원)보다 약 4.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7월 가격 역시 3kg당 2만 2,5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올랐으며, 평년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li> <li>· 8월과 9월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3.9%,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져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올해는 일조량 증가로 당도가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이 좋아진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노지감귤 또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좋은 품질이 기대됨</li> </ul> </li> <li>- <b>제주 7월 물가 1.7% 상승, 먹거리 부담 가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9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함. 하지만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라 7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식품 물가 상승이 두드러짐.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li> <li>·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으며, 특히 시금치, 마늘, 깻잎 등 채소류와 달걀 등 축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컸음. 시금치는 전월 대비 102.7%, 상추는 80.9% 폭등하는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심각함. 가공식품 물가 또한 5.2% 오르며 20개월 만에 다시 5%대에 진입하는 등 먹거리 물가 전반이 들쭉이고 있음</li> </ul> </li> <li>- <b>주택시장 침체 속 6월 인허가/착공 건수 증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상반기 제주 주택시장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요 공급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임.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862호로 41.4% 줄었고, 착공 건수는 1,160호로 46.2% 감소했으며, 분양 승인 물량은 65호에 그쳐 91.5% 급감함</li> <li>· 이러한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6월 한 달간의 실적은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임. 6월 인허가 건수는 168호, 착공 건수는 274호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4%, 51.4% 증가하며 반짝 상승세를 나타냄. 하지만 월간 분양 실적은 0건을 기록하며 분양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을 예고함</li> </ul> </li> </ul>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롯데관광개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함.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77억원, 영업이익 331억원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함.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li> </ul> </li> </ul>

경제·관광	매출	<p>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당기순이익은 59억원을 기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개선은 카지노, 호텔, 여행 등 3대 주력 사업 부문의 급성장 덕분임.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의 2분기 순매출은 1,100억원을 돌파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호텔 부문 역시 높은 객실 이용률을 보이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함. 7월에도 월간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li> </ul> <p>- 제주 1차산업 조수입, 사상 첫 5조원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의 총 조수입이 5조 2,14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함.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발작물과 축산업의 성장이 전체 조수입 상승을 견인함. 발작물 조수입은 1조 814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월동채소 분산 출하 등 수급 조절 노력이 주요한 결과로 분석됨</li> <li>· 감귤산업은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수입 1조 3,13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조 3천억원대를 유지함. 축산업 조수입 또한 1조 3,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수산업 분야는 4% 감소함.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특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li> </ul> <p>- 제주 대형소매점 매출 5개월째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며 소비 위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6월 판매액지수는 84.2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 2월(-18.3%)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행진임. 올해 1월 설 명절 효과로 잠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li> <li>·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의복(-32.3%), 화장품(-16.9%), 가전제품(-7.4%), 음식료품(-6.9%) 등 대부분 품목에서 판매가 감소함. 반면, 오락·취미·경기용품(23.2%)과 신발·가방(10.7%) 등 일부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음. 이러한 소비 부진은 광공업 생산 감소 및 재고 증가와 맞물려 제주 실물 경기의 침체를 보여줌</li> </ul>
	업체	<p>- 제주은행,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이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ERP 뱅킹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ICT 및 AI 분야 핵심 인재를 공개 채용함.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은행의 비전을 공유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채용 관련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li> <li>· 제주은행은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생태계 확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양사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결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임.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네이버페이 연동, QR 결제 인프라 확대, AI 얼굴인식 결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국 영업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li> </ul> <p>- 제주 소상공인·전통시장, 7월 체감경기 동반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7월 체감경기가 5월 이후 두 달 연속 동반 하락세를 보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58.9로 전월 대비 5.4p 하락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61.5)보다 낮은 수치임. 전통시장 체감 BSI는 54.1로 전월 대비 13.2p 급락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함. BSI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함</li> </ul>

	<p>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감 경기 악화의 주된 이유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경기 악화 요인'을 가장 많이 꼽았음. 소상공인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와 '매출 감소'가 뒤를 이었음. 8월 전망은 엇갈렸는데, 소상공인 전망 BSI는 소폭 상승했으나 전통시장 전망 BSI는 하락세를 이어감. 경기 호전 사유로는 양측 모두 '정부 지원 증대'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꼽음</li> <li>- 제주삼다수, 1L 신제품 출시 및 위탁판매사 재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개발공사가 1인 가구 증가와 외부 활동 확대 등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해 '제주삼다수 1ℓ' 제품을 새롭게 출시함. 신제품은 휴대성을 높인 슬림한 디자인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무라벨로 제작되었으며, 1인 가구가 일주일간 사용하기에 충분한 9개입 묶음으로 구성됨</li> <li>· 한편, 제주삼다수 국내 위탁판매사로 현 유통사인 광동제약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부 탈락 업체들이 평가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후유증이 예상됨. 업체들은 특정 심사위원이 광동제약에만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경쟁에 필요한 과거 실적 데이터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아 출발선이 달랐다고 주장함. 개발공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임</li> </ul> </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단속, 폭염, 정전, 차량, 대응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본격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1일부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본격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암체 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선 제한속도 70km/h 이상 도로에 적용될 예정임</li> <li>· 과속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아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단속은 실시간 위치 파악과 자동 정보 전송 기능을 갖춘 장비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li> </ul> </li> <li>- <b>출근길 숙취운전 집중 단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자치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출근 시간대(오전 6~9시)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함. 이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임</li> <li>· 단속 결과,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4건 등 총 5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으며, 단속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됨. 경찰은 숙취운전이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전날 과음 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함</li> </ul> </li> <li>- <b>공항·항만 주유취급소 특별 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소방안전본부가 8월 한 달간 도내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된 항공기·선박 주유취급소 1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출입검사를 추진함. 폭염기에는 유증기 발생량과 확산 속도가 증가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임</li> <li>·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정기 안전점검 이행 실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적정 선임 여부 등을 포함함. 이를 통해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둠</li> </ul> </li> </ul>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7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 기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월 제주도 평균기온이 27.9℃를 기록하며 역대 1위를 경신함. 이는 평년보다 2.4℃ 높은 수치로, 7월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 모든 날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li> <li>· 폭염일수는 5.3일, 열대야일수는 21.3일로 각각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귀포는 27일의 열대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함. 반면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역대 5번째로 비가 적게 내린 달로 기록됨</li> </ul> </li> <li>- <b>온열질환자 급증 및 대응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8월 5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의심 신고 건수가 총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6.6% 증가함. 환자 대부분은 고령층이며, 발일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지는 등 실외 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함</li> <li>· 제주소방안전본부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li> </ul> </li> </ul>

	<b>폭염</b>	<p>밀착형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함. 도내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 정제소금 등 폭염질환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펌블런스 28대를 예비 출동 자원으로 확보해 총력 대응에 나섬</p> <p>- <b>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폭염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와 같은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8.5)가 계속될 경우, 2090년대 제주의 '복합극한고온일'(폭염과 열대야가 연이어 발생하는 날)은 연간 75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현재(2000~2019년) 평균 0.85일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수치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줌</li> <li>· 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면 2090년대 복합극한고온일은 9.3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여부에 따라 미래 폭염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li> </ul>
<b>지역·사회</b>	<b>정전</b>	<p>- <b>제주시 대규모 정전 발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일 밤 9시 38분경 제주시 이도동, 아라동, 도남동 등 도심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약 3만 1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음. 이로 인해 상가, 주택, 도로의 전력 공급이 끊겨 암흑으로 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함</li> <li>· 정전은 약 10분에서 최장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복구되었으나, 그 사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5건을 포함해 총 298건의 관련 신고가 119에 폭주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름</li> </ul> <p>- <b>정전 원인 조사 및 후속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력은 정전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전소 설비 고장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이상 전압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음. 대규모 정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공식적인 사과나 원인 설명을 발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뒤늦게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정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기준 이하의 정전 발생 시에도 도 차원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한전과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li> </ul> <p>- <b>재난문자 미발송 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은 대규모 정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됨. 가로등과 신호등까지 꺼진 상황에서 상황 파악이 어려워 2차 사고의 위험이 컸음</li> <li>· 현행 행정안전부 기준상 재난문자 발송 대상은 '지장 전력' 120MW 이상이지만, 이번 정전은 46MW로 기준에 미달했음. 그러나 지자체는 자체 판단으로 문자 발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상황 파악 중 복구가 완료되어 발송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음</li> </ul>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소방서가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심지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 접근 시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돕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임</li> <li>· 시스템 도입 후, 제주 도심에서 긴급차량이 1k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1.4초로, 도입 초기인 2023년(139.2초)보다 약 48.7% 단축됨. 또한, 2021년부터 매년 2~3건씩 발생하던 소방차량의 교차로 사고가 2024년부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함</li> </ul> </li> <li>- 5중 연쇄 추돌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1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25톤 대형 트럭이 앞서 가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총 5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li> <li>· 이 사고로 트럭 바로 앞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총 14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에는 임신부와 미성년자 4명이 포함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다수 있었음.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급정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li> </ul> </li> <li>- 방치 자전거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도심의 자전거 보관소에 녹슬고 파손된 자전거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연동, 노형동 등 시내 곳곳의 보관소에서 먼지가 쌓이거나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된 자전거가 다수 발견됨</li> <li>· 제주시가 지난 5년간 수거한 무단 방치 자전거는 4261대에 달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1999년 도입된 '자전거 등록제'는 시민 참여 저조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ul> </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특수대응단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소방안전본부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등 복합적인 특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119특수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킴. 이를 통해 초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생명 보호 체계를 구축함</li> <li>· 특수대응단은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수구조대를 균형 배치하고, 헬기·화학·수난·산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으로써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li> <li>- 아이돌봄공백 가구 소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아이돌봄공백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함. 제주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 화재 시 조기 인지가 중요함</li> <li>· 지원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거주하며, 최근 3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구임. 8월부터 11월까지 가구당 단독경보형감지기 3~4대를 설치하고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li> </ul> </li> </ul>

지역·사회	대응	<p>-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서귀포 강정국제크루즈여행터미널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강화함. 작년 52만 명에 이어 올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임</li> <li>· 입도 전 크루즈 선박 내 영상 송출부터 터미널 무빙워크의 다국어 랩핑 광고, 입·출국장 모니터를 통한 범칙금 안내까지 이동 동선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노출함. 이를 통해 국내 기초질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국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